

##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회」 제4차 회의(광주) 인사말씀(6.17.)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님과 광주 경제부시장님, 광주상의 회장님 및 기업·대학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
- 두 번째 방문지인 이곳 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지방주도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.
- 오늘 현장을 돌아보니, 이곳 광주가 AI·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글로벌 섹터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이 듭니다.

### [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]

- 지금 우리 경제는 **거대한 전환점**에 서 있습니다.
- 과거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수도권 1극체제는 지역소멸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는 한계에 달했습니다.
- 이제 **지방 분권과 균형발전**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**국가적 생존 전략**입니다.
-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**전 국토를 넓고 고르게 활용하는 지방균형 국가**를 만들겠습니다.
- **5극 3특**을 중심으로 각 권역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독자적인 '초격차 성장엔진'을 확실하게 장착하여,
-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'**대체불가 대한민국**'으로 도약해야 합니다.

## [국토공간 대전환]

- 이를 위해 '국토공간 대전환'을 추진합니다.
  - 지역과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여,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·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.
-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하고,
  -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든든한 미래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  - '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, 과감하게 지원'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, 세제, 재정·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
## [금번 현장방문(PICK&BACK) 의의]

- 이제 5극 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(PICK) 하겠습니다.
  - \* 현장방문 계획(안) : (1회차)서남권·대경권 (2회차)중부권·강원·전북 (3회차)동남권·제주
  - 현장의 건의 내용은 정부, 기업,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\*」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지원(BACK)하겠습니다.
    - \* 정부, 기업, 경제6단체(간사: 대한상의)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,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에 반영(3.12 발족)

## [금일 회의 주제: AI · 자율주행차 등]

□ 금일 논의할 AI와 자율주행차는 광주 지역의 미래,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선도할 성장 동력입니다.

○ AI는 국가 미래 명운을 좌우할 핵심 국가전략으로, 우리 경제 전반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 전망이며,

○ 자율주행차는 피지컬 AI의 핵심산업으로서, 향후 글로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\* 시장규모('25.2, Metatech Insights): ('24) 1,865억\$ → ('35<sup>e</sup>) 6조 8,158억\$

□ 정부는 예산·세제·금융\* 패키지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, 공공 AX 등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중에 있으며,

\* (예산) 3.3조원('25년) → 9.9조원('26년), '27년도 AI분야 중점 투자 방침  
(세제) AI 국가전략기술 신설,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확대  
(금융)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에 5년간 30조원 지원 예정

○ '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\*'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글로벌 TOP3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.

\*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('26.4월, 국토부)

□ 오늘 회의에서 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여, 광주가 글로벌 AI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」 제5차 회의(경북·대구) 인사말씀(6.17.)

- 경상북도지사님, 구미시장님,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님,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님, 기업·대학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
- 전체 일정의 세 번째 방문지인 이곳 경북·대구는 전자부품, 반도체 소재, 로봇, 정밀기계와 연구역량이 함께 축적된 중요한 산업 거점입니다.
- 오늘 이 자리가 경북·대구의 제조역량과 연구역량,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### [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]

- 지금 우리 경제는 **거대한 전환점**에 서 있습니다.
- 과거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수도권 1극체제는 지역소멸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는 한계에 달했습니다.
- 이제 **지방 분권과 균형발전**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**국가적 생존 전략**입니다.
- 이재명 정부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**전 국토를 넓고 고르게 활용하는 지방균형 국가**를 만들겠습니다.
- **5극 3특**을 중심으로  
각 권역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 
독자적인 '초격차 성장엔진'을 확실하게 장착하여,
-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 
'**대체불가 대한민국**'으로 도약해야 합니다.

## [국토공간 대전환]

- 이를 위해 '국토공간 대전환'을 추진합니다.
  - 지역과 산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여,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초광역 경제·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.
-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하고,
  -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든든한 미래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  - '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, 과감하게 지원'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, 세제, 재정·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
## [금번 현장방문(PICK&BACK) 의의]

- 이제 5극 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(PICK) 하겠습니다.
  - \* 현장방문 계획(안) : (1회차)서남권·대경권 (2회차)중부권·강원·전북 (3회차)동남권·제주
  - 현장의 건의 내용은 정부, 기업,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\*」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지원(Back)하겠습니다.
    - \* 정부, 기업, 경제6단체(간사: 대한상의)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,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에 반영(3.12 발족)

## [금일 회의 주제: 로봇, 피지컬 AI, 소재·부품·장비 등]

- 로봇과 피지컬 AI는 생산현장을 바꾸고,  
소재·부품·장비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의 기초체력입니다.
- 정부도 로봇, 피지컬 AI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를 우리 경제의  
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,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-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 
개발하고, 핵심기술을 지역 제조 현장에 선도적으로 실증 추진합니다.
    - \*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('26년 150억원), 인간-AI협업형 LAM개발·글로벌 실증('26년 667억원), 협업지능 피지컬 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('26년 767억원) 등
-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 
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\*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.
  - \* 광주(첨단패키징), 부산(전력반도체), 구미(소재·부품)
- 구미 소재·부품 실증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여  
반도체 소재·부품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.
  - \*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사업('24~'28년 300억원), 반도체 장비 챔버용  
소재부품 테스트베드 사업('26~'30년 350억원) 등
- 오늘 회의에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부분들을 허심탄회  
하게 말씀주시면,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.